안철수 강연 인파 서울대 안철수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3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대강당에서 '광주의 미래, 청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날 강연에는 2000여명이 몰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5·18이 한국을 열린 사회로 만들었다"

■ 안철수 원장 전남대 강연 '광주의 미래 청년의 미래'

민주·산업화 모태 … 문화콘텐츠로 미래 열기를
균형발전, 혜택 보는 지역서 빚진 마음 가져야
공공기관 의무할당제 도입해야 지방대 활성화

4·11 총선을 8일 앞둔 3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민주주의의 성지이자 야당의 심장인 광주를 방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지역 정치권에서는 안 원장이 사실상 '강연 정치'를 통해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이미지를 강조, 정치적 입지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말 '정치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관심을 모은 안 원장은 최근 젊은층과의 만남을 이어가겠다고 밝혀 향후 소통 행보를 계속할 것임을 내비쳤다.

안 원장은 4일에도 경북대 강연에도 나설 예정이어서 '메시지 정치'를 당분간 이어갈 전망이다.

안 원장은 이날 전남대 대강당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지역균형발전은 정치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혜택 보는 지역에서 희생한 지역에 빚진 마음을 가지는 게 정치, 경제논리에 우선한다고 본다"며 "어떤 한 지역의 희생으로 다른 지역이 혜택을 보면 희생지역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인지상정이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논란들이 많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또 "정부 차원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투자하는 것 외에도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한다"며 "공공기관 지역의무할당제를 도입하거나 공무원 선발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지방 국립대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안 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대 강연에서 "사회의 긍정적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면 설령 정치라도 감당할 수 있다"며 정치 참여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점에서 이날 광주 방문은 본격적인 정치 행보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는 안 원장이 총선 이후 정치 상황을 지켜보며 대선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총선 결과가 대선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여야의 접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안 원장의 발걸음을 재촉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선이 다 끝난 뒤에 정치 행보를 시작하면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안 원장은 4·11 총선과 관련, "진영논리에 빠져서 정파적인 이익에 급급한 분이 아닌, 국민과 국익을 생각하는 그런 분을 뽑는 것이 맞다"며 "정당·정파보단 개인을 보고 선택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존 정치권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또 최근 자신이 서울 도봉갑과 경기 의왕·과천에 각각 출마한 민주통합당 인재근·송호창 후보를 지지한 행보를 뒷받침함과 동시에 여야의 선거 행태를 싸잡아 비판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톱스타' 안철수

강연장 구름인파 … 취재열기 뜨거워

'잠재적 대권주자'인 서울대 안철수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3일 광주 방문에서 '구름 인파'를 몰고 다니며 톱스타 못지 않은 인기(?)를 누렸다.

이날 강연회장인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대강당에는 안 원장의 강연을 듣기 위해 2000명 이상의 대학생·시민·공무원 등이 몰렸다.

대강당에 설치된 1500석의 좌석은 강연 시작 1시간 전에 이미 꽉찼다. 통로도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인산인해를 이뤘다. 만석으로 출입을 하지 못한 대기 줄만 200m에 달했다.

대강당 출입문에선 학생들과 출입을 저지하는 교직원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학 측은 용봉홀(300석 규모)에 인터넷 중계석을 따로 마련하는 한편,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교내 곳곳에 안 원장의 강연 내용을 전달했다.

취재진의 열기도 뜨거웠다. 200명이 넘는 취재진이 대거 몰리면서 안전 사고가 우려되자 대학 측은 "강의 시작 후 10분간 만 촬영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열기가 과열되면서 강연 시작이 5분가량 늦어지자 참석자들은 취재진을 향해 "그만해", "나가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안 원장이 강단에 올라서자 참석자들은 우뢰와 같은 박수를 보내면서 "안철수"를 연호했다. 강의 도중 안 원장의 재치 있는 입담이 나올 때마다 참석자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시민 정승현(35·서구 치평동)씨는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릴지 몰랐다. 강연시작 30분 전에 도착했는데,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며 "안 원장의 인기가 이 정도일 줄은 미처 몰랐다. 아쉽지만, 어쩔 수 있느냐"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지역 이슈 실종

4·11 총선 '바람' 보다 '조직' … 막판 돌발변수 촉각

4·11 총선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지만, 눈에 띄는 선거 이슈가 없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주통합당의 모바일 국민경선 사태와 '경선 잡음'으로 인해 무소속 '바람'이 거셀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까지 소강상태를 보여 이번 총선은 '바람'보다는 '조직'에 의한 투표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추격전을 벌이는 후보들은 선거 막판 '바람 몰이'를 위해 돌발변수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반면 1위 수성에 나선 후보들은 혹시나 선거 막판 생겨날 돌발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변수 잠재우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3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여·야의 총선 전략이 이명박 정부 심판 및 정권교체와 불법 민간인 사찰 등에 집중되면서 지역과 관련된 총선 이슈가 뚜렷하게 부상하지 않고 있다.

애초 민주통합당의 '공천 잡음'과 컷오프 현역 의원들의 무소속 출마로 인해 무소속 연대 또는 무소속 후보 간 합종연횡이 이뤄지는 등 '무소속 돌풍'이 예상됐지만, '미풍'에 그치면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광주 서구 을의 야권연대 후보 대 새누리당 후보 간 대결과 서구 갑, 북구 을, 나주·화순 등 일부 선거구의 '민주 대 무소속' 대결이 그나마 유권자들의 관심을 끄는 관전포인트다.

전남은 민주통합당 후보 확정 이후 상당수 선거구의 판도가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후보와 통합진보당 후보 간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순천·곡성 선거구만이 주목되고 있다.

이는 야당 후보들은 '연말 정권교체'와 '민간인 불법 사찰' 등 정치적 현안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무소속 후보들은 인물론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후보들이 선거이슈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1위 후보를 맹추격하고 있는 후보들은 애가 타고 있다. 선거일이 코 앞까지 다가왔지만, 선거이슈나 돌발 변수 없이 막판 뒤집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해서다. 따라서 각 후보 선거캠프는 상대 후보의 약점을 파고들거나 선거판을 뒤흔들 만한 이슈를 찾느라 골몰하고 있다.

또한, 일부 후보들은 뚜렷한 선거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젊은층의 투표율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대학생 등 젊은층 공략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지지도 면에서 우위에 있는 후보들은 막판 돌발 변수라도 생길까봐 전전긍긍하며 조직표 다지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만한 지역 이슈 개발이 아쉽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생각할수록 섬뜩하다

환상제주 Fantastic Jeju NO.1 제주여행전문랜드
환상제주 봄시즌 BIG HIT! 제주여행
특전1. 특식(전복해물전골+전복회+옥돔구이) 특전2. 제주방문 기념사진 1매
*상품기간 : 2012.03.01 ~ 2012.07.19 *버스패키지 계약금 50,000원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3년 연속 "올해의 항공사상" 수상!
아시아나항공과 함께하는 짜릿한 제주여행~
"항공/선박 좌석 다량 확보!!"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 KOREAN AIR 우수대리점 / JINAIR 우수대리점 / EASTAR JET 우수대리점 / AIR BUSAN 우수대리점 / 씨월드고속훼리 (목포) / 주식회사 한일고속 블루나래 (완도) / 장흥해운 오렌지호 (장흥)
신비의 섬 "제주 탐방" 투어 오픈특가 이벤트
광주공항출발 아시아나항공 광주발 19:35 / 제주발 19:35 (광주착) (최소인원 : 2명/매일출발)
왕복 2박3일 (일반호텔 5인실기준) 1인 209,000원~ (관광1급 2인실 1인 30,000원 추가)
1일 광주 공항 출발 – 제주 공항 도착 – "환상제주" 피켓미팅 – 석식(개별식) – 호텔 체크인 및 자유시간
2일 호텔 조식 후 관광 – 이국적인 풍경과 그윽한 향이 가득 오설록박물관 – '칭기스칸의 검은 깃발' 더馬파크 산방산/용머리해안/하멜기념관 – 중식(전복해물전골+전복회+옥돔구이) – 석부작테마공원 〈선택관광〉서귀포유람선 – 올레길8코스체험(하얏트산책로/중문색달해변) – 동백꽃동산 카멜리아힐 석식(개별식) – 호텔 체크인 및 자유시간
3일 호텔 조식 후 관광 – 탐라원(토산품점쇼핑) – 〈선택관광〉삼국지랜드 – 숲속 기차여행 곶자왈 관광 에코랜드 숲속열차 – 아름다운 초원을 달리며 즐기는 조랑말승마체험 – 중식(토종돼지불고기+전+막걸리) 성읍민속마을(전통초가마을체험) – 천가지 아름다움이 있는 미천굴관광지구 일출랜드 성산일출봉의 아름다운 자태와 탁 트인 해안절경 섭지코지 – 종달리 해안도로 경유– 종달리 해안도로 경유 석식(개별식) – 호텔 체크인 및 자유시간
완도항출발 주식회사 한일고속 블루나래 왕복 2박3일 (일반호텔 5인실기준) 1인 169,000원~ (관광1급 2인실 1인 30,000원 추가)
목포항출발 씨월드고속훼리 씨스타크루즈 왕복 2박3일 (일반호텔 5인실기준) 1인 139,000원~ (관광1급 2인실 1인 30,000원 추가)
■ 공통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호텔료, 전용차량, 관광지입장료, 조/중식, 여행자보험, 제주방문 기념사진 1매
■ 공통불포함사항 : 유류할증료(3월기준26,400원), 전 일정 석식, 기사/가이드 팁(1인 10,000원), 선택관광
■ 선택관광 : 서귀포유람선(성인17,500원/소아11,000원), 삼국지랜드(성인12,000원/소아8,000원)
환상제주 와 함께할 여행사 파트너를 모십니다.
광주/전남 T.062-675-0064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번지 금호종합금융 4층 담당 : 공지혜 대리
전북/충남 T.063-255-0064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82-14 영진빌딩 201호
제주 T.1600-4800 대구 T.053-425-0747 서울 T.02-6404-4708 부산 T.051-469-7030
관광사업등록 제 제1호 / 통신판매업신고증 제 2009-6510059-30-2-00030호
버스투어 전문 / 골프투어 전문 / 신혼여행 전문 / 수학/졸업 여행전문 / 호텔/펜션 예약전문 / 항공권/렌터카 예약전문 / 단체/세미나 전문 / 한라산등반 / 올레 트래킹
강력추천 환상제주 "부모님 孝사랑" 1인 259,000원~ (관광1급 2인실 1인 30,000원 추가)
NO팁! NO옵션! NO쇼핑! 석식 2회(돔베고기정식, 고등어조림) 기념사진앨범(10page/5장) 1권
자유여행 2박3일 (왕복항공료 + 숙박 2박 + 렌터카 48시간) * 유류할증료 불포함 광주출발
메모리펜션 2인1실 15평 원룸(1인기준) 251,000원~
유로펜션 2인1실 19평(1인기준) 241,000원~
한화리조트 5인1실 25평(1인기준) 185,000원~
환상제주 여행문의
〈광주〉 하이센스여행사 350-6222 / 〈광주〉 이유여행사 374-1881 / 〈광주〉 에스케이여행사 382-2226 / 〈광주〉 한별투어 956-0045 / 〈광주/첨단〉 투어디자인 974-3050 / 〈광주〉 무등파크여행사 228-7470 / 〈광주〉 메이투어 070-7093-0555 / 〈광주/첨단〉 리치투어 431-0102 / 〈광주〉 클럽모두(홈플러스) 269-9362 / 〈영광〉 한민족여행나라 061-352-8282 / 〈화순〉 뉴남일관광 061-375-9999